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

#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황 치 열

#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봉 환

이 논문을 공기업정책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5월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황 치 열

황치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u>임 도 빈 (인)</u> 부위원장 <u>최 종 원 (인)</u> 위 원 김 봉 환 (인)

# 국문초록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당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 확대는 자칫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 따라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이행하는 수준은 달랐으며, 특히 은행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이행한 것이 그 이후의 은행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내은행 18개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으며, 은행유형 및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2009~2010년) 동안 개별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으로 정의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2011~2013년)의 은행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은행의 경영성과 지표로는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건전성 지표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그리고 성장성 지표로 총자산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성에는 다소 약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정책 이행은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한 특수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수준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

들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결국 은행이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취하는 것이 은행의 경영성과 측면에는 보다 더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는 은행이 자금지원을 축소하게 되는 시장실패가 뒤따를 것이고, 정부는 특수은행을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펴는 일련의반복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지원정책에는 재정투입이 요구되고 비효율성과 외부효과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위 기시에도 시장에 의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은행은 경제위기시마다 되풀이하는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 출행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시에도 대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 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경제위기시에 은행의 자발적인 내부전략이 아닌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대출 확대가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정부정책을 이행하기 이전부터 은행별로 존재하던 경영성과 차이요인에 대한 통제가 다소 부족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연구결과에 대해 계량에 기초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 일부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경제위기시에 정부 정책입안자 및은행에 보다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은행 경영성과, 금융위기, 대출확대

학 번: 2014-23665

# 목 차

제	1	징	トス	네 론	••••	•••••	•••••	•••••	• • • • • • • •	•••••	••••••	••••	1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됵	구적	•••••	•••••	•••••	••••••	•••••	1
	제	2	절	연구	대상	및 병	납법	•••••	•••••	•••••	•••••	•••••	4
제	2	징	- 0	]론	적 논	의	및 선	선 행 연	년구	검토	•••••	••••	6
	제	1	절	글로'	벌 금	융위	기의	원인	및 %	형향 ·	•••••	•••••	6
		1.	글:	로벌 급	금융위	기의	원인	•••••	•••••	•••••	•••••	•••••	6
		2.	글:	로벌 =	금융위	기의	영향		•••••	•••••	•••••		8
	저	2	절	은행	의 디	출	행 태	•••••	•••••	•••••	••••••	•••••	10
		1.	대	출의 7	경기순	응성	•••••		•••••	•••••	•••••		10
		2.	국١	내 일	반은행	의 중	소기	업대출	행태	•••••	•••••		11
	저	3	절	정부	-의 중	소기	]업	금융지	기원정	책 …	•••••	•••••	13
		1.	금	융지원	정책이	네 대학	한 정.	의					13
		2.	정:	책금융	기관을	을 통	한 중:	소기업	금융	지원정	책	•••••	14
		3.	은	행을 -	통한 충	· 소기	업 =	1융지	원정책		•••••		17
	저	4	절	선행	[연구	검토	<u> </u>	•••••	••••••	•••••	•••••	•••••	28
		1.	선	행연구	-의 특	징			•••••	•••••	•••••		28
		2.	유/	사연구	- 검토		•••••		•••••	•••••			29
	저	5	절	연구	의 의	기의	•••••	•••••	••••••	•••••	••••••	•••••	32
제	3	징	- q	연구석	설계	•••••	•••••	•••••	•••••	•••••	•••••	••••	34
	저	1	절	연구	모형	•••••	•••••	•••••	••••••	•••••	••••••	•••••	34
	저	1 2	절	연구	가설	•••••	•••••	•••••	•••••	•••••		•••••	36

1.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6
2.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별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9
3.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별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40
제 3 절 변수측정	41
1. 독립변수	41
2. 종속변수	42
3. 통제변수	43
¶ 4 장 실증분석 결과 ········· 4	15
제 1 절 기술통계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50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52
1. 가설 1의 검증결과	52
2. 가설 2의 검증결과	58
3. 가설 3의 검증결과	65
ll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71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71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b>7</b> 4
제 3 절 연구의 한계	77
	. •
아고문헌 ····································	79
hstract	

# 표 목차

[표 2-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 추이	8
[표 2-2] 중소제조업 자금사정BSI 추이	9
[표 2-3] 특수은행별 중소기업대출 현황(2013년말)	20
[표 2-4] 일반은행별 중소기업대출 현황(2013년말)	21
[표 2-5] 주요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 MOU 체결내용	<u>L</u>
	23
[표 2-6] 신용위험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내용	24
[표 2-7]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	
	26
[표 3-1] 변수별 측정방법	44
[표 4-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45
[표 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46
[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48
[표 4-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51
[표 4-5] 정부정책 이행과 수익성과의 관계	52
[표 4-6] 정부정책 이행과 건전성과의 관계	55
[표 4-7] 정부정책 이행과 성장성과의 관계	57
[표 4-8]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수익성과의 관계 …	59
[표 4-9]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건전성과의 관계 …	62
[표 4-10]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성장성과의 관계 …	64
[표 4-11]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수익성과의 관계 …	66
[표 4-12]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건전성과의 관계 …	68
[표 4-13]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성장성과의 관계 …	69
[표 4-14] 가설검증 결과 요약	70
[표 5-1] 주요은행의 최근 3년간 경영성과 평균 비교	78

# 그림 목차

[그림	2-1]	국내	일반	은행의	중스	소기 <sup>ç</sup>	겁대출	과	경기	변동의	의	관.	계
		•••••	•••••		•••••	•••••	•••••	•••••	•••••	•••••	••••	• 1	1
[그림	2-2]	중소기	기업	정책금·	융 7	기본	체계	••••	••••••	•••••	••••	· 1	4
[그림	3-1]	연구의	모형			•••••	•••••				••••	. 3	35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1997년 IMF외환위기를 비롯하여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커다란 경제위기 때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중소기업이 신용경색에 따른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자 신속한 정책대응으로 중소기업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해소케 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정책자금을 확대공급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을 폈다. 또한,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정책금융기관과는 달리 국내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은행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특수은행은 물론 일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 중소기업대출 비율, 만기연장 등에 대해서 국내 18개 은행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위축을 최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흑자도산 기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속 지원제도, 이른바Fast-Track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또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공급토록 하기 위해 자본금 출자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행수준은 은행별로 달랐으며, 특히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은행과 그렇지 않은 시중은행 간에는 차이가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중소기업대출금은 은행권 전체적으로 18조 6,868억원이 순증하였는데, 이 중 특수은행이 전체 순증액의 87.6%인 16조 3,628억원을 순증한 반면에, 당시이른바 Big4로 불리던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의 시중은행은 오히려 2조 7,3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순증액의 27.0%인 5조 569억원을 순증하였다.1)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 특수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은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의 경영성과에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는 대출조건 완화 등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유입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은행과는 달리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여신자산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지원에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축소한 현상에서 쉽게 예측해 볼 수있다.

특수은행의 설립 목적이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함이기는 하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실자산 증가로 인해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해당 은행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행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수은행의 숙명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공기업이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인해 정부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들 공기업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정부정책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만의 문제로 여겨지는 현실을 볼 때, 특수은행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면서도 기업으로서 존립을 위한경영성과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시중은행의 경우 내부

<sup>1)</sup>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원화대출금 기준)

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정부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해당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은행이 얼마나 이행했느냐에 따라 은행의 경영성과에 유 의미한 차이를 불러왔을 것으로 보고, 이를 국내 은행들을 대상으로 비 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위기 시에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는 한편, 특수은행을 비롯한 은행이 해야 할 바람직한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내 18개 은행<sup>2)</sup>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연도별 경영지표를 가지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등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기간(2009~2010년)동안의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3년(2011~2013년)에 걸쳐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조절효과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하나는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따라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또 다른 하나는 은행이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 즉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한 정도에따라서도 경영성과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인데, 이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펼친 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으로 보았다.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발생 이후 정부가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권과 체결한 양해각서 (MOU)의 유효기한은 2009년말로 종료되었으나,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지원 방안인 Fast-Track 프로그램이 2010년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되었고, 2010년이 지나서야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안정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 기간 동안의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한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았는데, 이는 정부의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들이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대출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에 착안하였다.

SC제일은행

<sup>2)</sup> 특수은행(5개) :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시중은행(7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지방은행(6개):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은행별 경영지표에 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www.fss.or.kr)의 은행경영통계 자료와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의 각 은행별 경영공시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과 e-나라지표(www.index.go.kr) 등을 활용하였다. 그 밖에 기존의 선행 학술 논문과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 발행한정책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고 연구모형을설계하는데 참조하였다.

# 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 제 1 절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영향

####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까지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준 위기였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Lehman Brothers) 파산보호 신청을 정점으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으며, 1929년의 경제대공황에 비유될 정도로 세계경제에 엄청난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국가의 통화가치와 주가는 급락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생산, 소비, 투자등 실물경기 전반에 걸쳐 냉각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저금리정책을 비롯하여 글로벌 불균형, 파생상품의 발달과 투자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수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 IT버블 붕괴에 따라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처하고 소비심리를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 6.5% 수준이던 연방기금리를 총 13차례에 걸쳐 2003년 6월에 1% 수준까지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자 국제금융시장에서 미 달러화 유동성이 증가하였고 동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유입되면서장기금리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저금리정책과 글로벌 불균형으로 인해 미국 주택 관련 대출이 호황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기존의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서브프라임 등급 보유자들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추후 부실의 원인이 되었다.3 서브프라임 등급 보유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데에는 파생금융

<sup>3)</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4~7

상품의 발달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파생금융상품은 그 자체로 또는 서로 혼합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된 후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있어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를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것뿐만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에 잠재해 있는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위기를 증폭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가계, 금융회사, 신용평가기관 등의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에도 그 원인이 있다.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될 것을 기대하며 채무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받아왔고, 금융회사 또한 초기에는 금리가 낮지만 점차 금리부담이 높아지는 대출을 충분한 설명없이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가계에 판매하고 수년간 이자만 상환하는 모기지 대출을 적극 활용하였다.4)

모기지대출 시장 활성화로 주택가격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주택가격에 버블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물가상승이 가시화되자 미연준이 2004년 6월 이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고,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이 한계에 다다르고 모기지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모기지대출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게 되자 대출 부실화로 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게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는 발생하게 되었다.5)

<sup>4)</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7~10

<sup>5)</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15~20

####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 (1) 은행에 미친 영향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되었다.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및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부실여신 증가 등으로 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국내 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07년말 12.31%에서 2008년 9월말 10.86%까지 하락하였다.

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곧바로 은행의 소극적인 중소기업대출 지원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2007년부터 금융위기 발발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은행이보수적으로 대출을 운용하고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글로벌금융위기 발생 이전(2008년 1~8월)에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월평균5.5조원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2008년 9~12월)에는 월평균 2.2조원 증가에 그쳤다.6)

[표 2-1] 국내은행의 중소기업 대출태도지수7) 추이

	200	7년		2008년				
1/4	2/4	3/4	4/4	1/4	2/4	3/4	4/4	
25	13	-13	-28	-22	-22	-34	-28	

\* 자료 :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한국은행)

<sup>6)</sup>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p.31

<sup>7)</sup>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대출 관련 통계의 하나로서 금융기관의 은행대출여건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0을 기준치로 하여 -100 ~ +100 범위로 표시하며, (+)는 대출태도 '완화'로 응답한 금융회사 수가 '강화'로 응답한 수보다 많은 경우를, (-)는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 (2)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수출부진 및 내수침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또한 시중은행들이 국내외 금융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축소하면서 중소기업대출 시장에는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로 인해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중소제조업의 자금사정BSI는 2007년에 80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1/4분기~3/4분기에는 80미만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8년 4/4분기에는 60미만으로 떨어졌다.

[표 2-2] 중소제조업 자금사정BSI<sup>8)</sup> 추이

	200	7년		2008년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86	87	83	84	77	76	75	59		

\* 자료 : 기업경기조사 결과(한국은행)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과 부도업체 또한 급증하였다. 2007년 1.0%, 2008년 1/4~3/4분기 중 1.4% 수준이었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08년 4/4분기 중 1.8%로 증가하였고, 2009년 1/4~2/4분기 중에는 2.4%로 더욱 증가하였다. 월평균 부도업체수는 2007년 191개, 2008년 1/4~3/4분기 중 196개에서 2008년 4/4분기 중 321 개로 급증했으며, 2009년 1/4분기까지 월평균 240개가 발생하였다.9)

<sup>8)</sup>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조사의 한 항목으로 기업가의 현재 경기수준에 대한 판단과 향후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이용된다. BSI는 {「호전」응답업체 구성비(%)—「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산출되며, 100을 기준치로 하여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낸다.

<sup>9)</sup>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p.31

### 제 2 절 은행의 대출 행태

#### 1. 대출의 경기순응성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란 은행의 대출금액이 경기순환과정과 더불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 은행은 경기의 고점에서는 대출위험을 과소평가하여 신용공급을 확대하게 되며, 반대로 경기의 저점에서는 대출위험을 과대평가하여 신용공급을 위축시키게 된다.(윤석헌·박래수, 2009)

경제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은 부실대출자산이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BIS자기자본비율 등의 경영지표가 나빠진다. 이는 은행의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이 대외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질 뿐만아니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에 대한 제재가 들어옴에 따라 대출여력이 줄어들어 보수적인 대출행태를 보이게 된다. 특히, 은행들은 대기업에비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대출을 먼저 회수함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시에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대기업이 회사채 및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점도 경제위기시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 발생 요인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은행과 중소기업간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중소기업은 신용정보가 불투명하고 재무상황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은행은 경기침체기에 미래수익성을 과소평가하거나 신용리스크를 과대평가하여 대출을 기피하게 되는 반면에 경기호황기에는 엄격한 대출심사 없이 대출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주주와 전문경영인간 이해상충 문제이다. 장기적인이윤을 추구하는 주주와 달리 전문경영인은 단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게되는데, 경기호황기에 신용도 낮은 차주에까지 확대한 대출이 경기침체기에 부실로 이어지면서 은행은 중소기업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셋째, 리스크 측정의 오류이다. 은행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상황 및 손실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단기적 상황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이럴 경우 경기상승기에는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 경기하강기에는 리스크가 과대평가된다. 넷째, 시장참여자들의 조율되지 않은 이기적 행동이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에 일부 은행이 손실을 방지하기위하여 중소기업대출을 일시적으로 회수할 경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자금회수로 연결되면서 중소기업 전체의 자금경색의 원인이 된다. 이 밖에도 시장참가자의 근시안적 행동, 쏠림현상 등 심리적 요인도 중소기업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신용상, 2006)

#### 2. 국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행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변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래 [그림 2-1]과 같이 중소기 업대출은 경기순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국내 일반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경기변동의 관계

\* 데이터 출처 : 은행경영통계. e-나라지표

일반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은 대체로 명목GDP성장률과 비슷한 패턴으로 변동하고 있으나, 명목GDP성장률 변동폭에 비해 큰 폭으로 등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기가 상승기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림으로써 명목GDP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에, 경기가 하강기에 있을 때는 중소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림으로써 명목GDP성장률을 밑돌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1997년 IMF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 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세 차례에 걸쳐 커다란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는데, 그 때마다 국내 일반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에 있어 뚜렷한 경기순응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1997년 IMF외환위기가 닥치자 1996년에 1 3.4%에 달했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5.3%로 하락하였으며, 외환위기가 실물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이듬해에는 -8.5%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은행이 유동성 부족으로 중소기업대출을 지원할 여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적극적으로 회수한 결과로 보여진다.

두 번째 경제위기인 2003년 카드사태가 발생하자 2002년도에 30.4%에 달했던 높은 증가율은 18.5%로 하락했고, 2004년에는 0.1%의 증가율에 그쳤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일반은행들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더욱 두드러졌다. 2007년 26.1%에서 2008년 12.7%로 하락한데 이어 본격적으로 금융위기의 여파가 미친 200 9년에는 정부의 강력한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리고 2009년 12월말로 정부가 국내은행과 체결한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MOU)의 유효기한이 만료됨에 따라대출지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사라지자 일반은행들은 기지원한 대출을 회수함으로써 2010년에는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 제 3 절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 1.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정의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협의의 금융지원정책과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에는 전형적인 금융지원정책인 정책금융이 해당되며,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에는 정책금융뿐만 아니라 정부 및 금융당국이 특정 경제상황에 부응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펴는 금융정책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금융지원정책이라 함은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 정부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펼친 다양한 금융지원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 행은 정책금융기관에 속하나, 전형적인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기관과는 기능과 역할이 달라 광의의 금융지원정책 수단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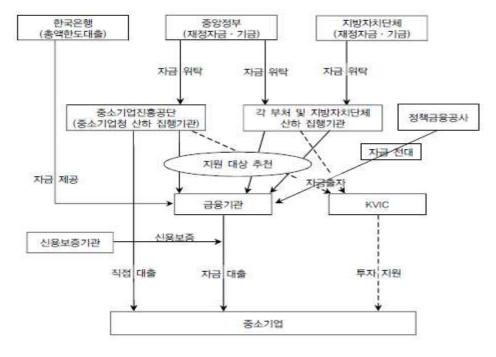
한편,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서 정책금융의 정의와 범위는 논의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나,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 에서 중소기업의 가용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둘째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기능을 보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담보력 및 신용도를 보완하 는 제도, 셋째 재정자금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이종욱, 2010)

위 세 가지 정책금융을 집행기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제도로는 한국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제도를 들 수 있고, 두 번째 제도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신용보증제도, 세 번째 제도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등이 해당된다.

# 2.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 (1)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 체계

모든 영역의 시장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정부는 중소기업금융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경제의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고 정부의 특정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고자 정책금융을 활용한다. 그간 정부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정책금융을 평상시는 물론이고 경제위기시에 가동함으로써 특정산업의 경제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꾀해 왔다. 현재 정부가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기본 체계는 다음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본 체계10)

<sup>10)</sup> 이기영(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금 융연구원, p.4

#### (2)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정책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지원이 축소되자 중소기업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수단인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정책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정책자금 지원 확대

정부는 중소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의 2009년도 정책자금 규모를 2008년 약 3조 1,530억원 대비 2조 7,025억원 늘린 5조 8,555조원으로 확대 편성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금인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과 소상 공인지원자금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고, 운전자금 비중을 한시적으 로 40%에서 60%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다.11)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의 목적성이 높고 산업파급효과가 큰 창업기업 및 개발기술사업화기업 등을 비롯하여 민감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 어려운 소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였다. 또한, 정책자금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중소기업의 신용경색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기업평가방식의 간소화, 상시접수체제의 시행, 본부 심사인력의 지역본(지)부 배치, 주말 근무 등을 실시하는 등 비상지원체제를 가동하였다. 그 밖에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특별조치 시행 및 관련 제도를 도입 또는 개선하였다.12)

<sup>11)</sup>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p.40

<sup>12)</sup>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p.40~42

#### 2) 신용보증 지원 확대

정부는 2009년 2월 12일 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의 은행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신용보증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신보·기보·지역재단 등 보증기관은 보증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상향조정 하였다. 2009년에 만기도래하는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토록 하고, 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를 완화하여 신규보증 공급을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이들 보증기관들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보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특별조치를 시행하였고, 관련 제도를 도입·개선하였다.

보증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기금은 2009년에 일반보증 기준으로 전년 대비 9조 9,477억원이 증가한 총 38조 9,64 1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성장유망기업 지원과 고용창출을 위한 신규기업 발굴에도 주력하여 전년 대비 1만 4,458개 증가한 5만 9,339개 중소기업에 신규로 보증을 지원하였다. 2009년 보증잔액은 총 39조 2,494억원으로 2008년 대비 8조 8,626억원이 증가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2009년에 전년 대비 5조원이 증가한 17조 5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기술혁신기업의 발굴·지원에 주력하여 설립이후 최대인 총 8조 2천억원의 신규보증을 지원하였다. 2009년 보증잔액은 17조 1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4조5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2009년에 2008년의 보증공급액 3조 9천억원 대비 115.7% 증가한 8조 4천억원을 공급하였다. 특히,전체 보증공급액의 89.2%인 7조 5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기여하였다. 2009년 보증잔액은 전년 대비 5조 2,059억원이 증가한 11조 1,953억원에 달하였다.13)

<sup>13)</sup>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연구원, p. 63, 85, 107

#### 3)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증액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총액한도대출을 2008년 11월에 기존 6.5조원에서 9조원으로 2.5조원 증액한데 이어 2009년 3월에 다시 10조원으로 1조원을 증액하였다. 또한총액한도대출금리도 6회에 걸쳐 3.50%에서 1.25%로 총 2.25%p를 인하하였다. 특히,총액한도대출 2억원을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지원 대상자에 우선 지원하였는데,이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중소기업에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였다.한편,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증액과 함께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3.25%p 인하하였다.14)

#### 3.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워정책

#### (1) 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단으로서의 은행

정부가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정부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전체 대출금 중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대출이나 보증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대출의 실질적인 공급채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은행들이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확대하지 않으면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금융기관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수은행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반은행 또한 설립근거법인 은행법 등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규제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은행은 금융의 공익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나,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지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sup>14)</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09~210

#### 1) 특수은행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재원, 채산성 또는 전문성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자금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일반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자금운용 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sup>15)</sup>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특수은행으로는 기업은행이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① 기업은행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담 전문은행으로 1961년에 중소기업은행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 확립을 통한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6) 기업은행은 업무성격이 시중은행과 거의 유사하나, 예·적금 및 기타 채무증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중소기업금융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더한 금액에서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70% 이상을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7) 2013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7 3.08%1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전체 원화대출금 중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6.6%에 달하고 있다.

<sup>15)</sup>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p.84

<sup>16)</sup>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sup>17)</sup> 중소기업은행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sup>18)</sup> 정부 57.73%, 한국정책금융공사 8.86%, 국민연금 4.22%, 한국수출입은행 2.27%를 합산한 비율임

#### ② 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한국전쟁 이후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산업은행은 구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할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009년에 새로 설립됨에 따라 산업자금 공급 업무에서 기업금융, 국제금융, 투자금융, 개인금융 등의 분야로 업무 비중을 확대해가고 있다. 산업은행은 그동안 우리나라 주요 산업에 대해 주로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 2013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100%의 지분을소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은 전체 원화대출금 중에서 기업자금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95.1%,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4.5% 수준이다.

#### ③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은 1969년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거 1960년대 후반 수출 구조의 변화로 연불거래 방식에 의한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과 해외투 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수출입은행은 상품 수출 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출, 외국에 대한 기술 제공을 위한 자금의 대출, 우리나라로부터의 상품 수입 또는 기술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 금의 외국 정부 및 외국인에 대한 대출, 국민경제에 긴요한 자원이나 상 품의 원활한 수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및 해외투자를 위한 대출 등을 취 급하고 있다.<sup>20)</sup> 2013년말 기준으로 정부가 68.0%, 한국은행이 16.1%, 정 책금융공사가 15.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전체 원화대 출금 중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5% 수준이다.

<sup>19)</sup>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p.114~115

<sup>20)</sup>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p.117~118

[표 2-3] 특수은행별 중소기업대출 현황(2013년말)

(단위: 억원, %)

구 분	정부 지분	총대출금	중소기업대출금	비중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비
기 업	73.1	1,397,825	1,070,262	76.6	21.9
산 업	100.0	636,095	155,737	24.5	3.2
수출입	100.0	127,905	36,460	28.5	0.7
농 협	_	1,417,233	519,395	36.6	10.6
수 협	_	164,110	102,923	62.7	2.1
특수은행	-	3,743,168	1,884,777	50.4	38.5

<sup>\*</sup> 은행경영통계(원화대출금 기준)

#### 2) 일반은행

일반은행은 예금·대출 및 지급결제 업무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어 상업은행으로도 불리며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으로 2013년말 기준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한국씨티 은행 등 7개 은행이 있으며,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위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은행으로 2013년말 기준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이 있다.21)

시중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나 지역경제 규모 등에 따라 지역별로 지점설치 등 금융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한 지방에 대한 금융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을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1967년 정부의 지방은행 설치 정책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방은행은 전국 영업이가능한 시중은행과 달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점의 개설 및 영업이 가능하며, 총여신의 70%가 해당 영업구역의 중소기업에 지원되어야 하는 제한이 따른다.(박주철, 2011)

<sup>21)</sup>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p.81~82

[표 2-4] 일반은행별 중소기업대출 현황(2013년말)

(단위: 억원, %)

					중소기업대출
구	분	총대출금	중소기업대출금	비중	시장점유비
	국 민	1,867,345	674,804	36.1	13.8
	우 리	1,541,312	580,094	37.6	11.9
	신 한	1,463,655	550,621	37.6	11.3
カスの剝	하 나	1,051,219	319,911	30.4	6.5
시중은행	외 환	493,986	150,389	30.4	3.1
	한국씨티	207,568	62,638	30.2	1.3
	SC제일	254,640	54,164	21.3	1.1
	소 계	6,879,724	2,392,620	34.8	48.9
	부 산	282,820	181,128	64.0	3.7
	대 구	241,778	153,199	63.4	3.1
	경 남	230,483	142,639	61.9	2.9
지방은행	광 주	125,758	74,126	58.9	1.5
	전 북	84,536	48,138	56.9	1.0
	제 주	22,166	15,303	69.0	0.3
	소 계	987,540	614,534	62.2	12.6
일반	은행	7,867,264	3,007,154	38.2	61.5

<sup>\*</sup> 은행경영통계(원화대출금 기준)

## (2)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부는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서의 정책금융으로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특수은행은 물론이고 일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확대전략을 펼쳤다.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자금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나, 은행들은 정부의 보증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기업대출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정부 또한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에게 일방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할 것을 강요할 수만은 없었다.

#### 1) 특수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내은행들이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보임에 따라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순증이 큰 폭으로 축소었다. 이에 정부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특수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금융지원정책을 펼쳤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산업은행에 1조 4,000억원, 수출입은행에 9,500억원, 기업은행에는 총 5차례에 걸쳐 1조3, 300억원의 현물/현금 출자를 하였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문 특수은행으로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한편, 신·기보 등 보증기관 등과의 정책적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기업은행은 정부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물부문에 대한 유동성 지원"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2009년 중소기업대출 공급 32조원('08년 26조원 대비 23% 증가), 순증 12조원('08년 8조원 대비 50% 증가)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2009년 중만기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없이 만기연장키로 하였다. 그밖에도 정부가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놓은 Fast-Track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중소기업대출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보증지원 확대에 맞추어 보증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신·기보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서 발급을 증대하는 등기업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앞장서 추진하였다. 22)

산업은행은 정부로부터 증자된 1조 4,000억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하여 3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특별시설자금을 운용하였고, 금리우대 0.5%를 적용하여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영자금을 운용하였다. 2009년 중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

<sup>22)</sup> 기업은행(201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BK의 대응』, p.16~19, 103

에 대하여는 상환유예조치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유동성 애로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도 시행하였다. 한편, 별도의 금리우대 및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환리스크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2009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목표(12조원)의 104.2%인 12.5조원의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정부의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적극 수행하였다. 23)

#### 2) 외화지급보증에 따른 은행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해외 외화차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1,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을 서주었다. 대신 이 조건으로 2008년 11월에 18개 국내은행과 중소기업대출 순증금액(은행권 전체 37조원) 및 중소기업대출비율 등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은행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였다. 정부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중소기업대출 및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등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은행들로 하여금 이를 위한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후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이행이 미흡할 경우 지급보증한도 축소 및 감독상 제재조치 등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다.24)

[표 2-5] 주요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 관련 MOU 체결내용<sup>25)</sup>

(단위:%)

구 분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2008년12월	79.6	35.6	35.5	43.7	43.9	37.0
MOU비율	77.0	43.0	50.0	47.7	45.1	38.7

<sup>23)</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68~270

<sup>24)</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19~220

<sup>25)</sup> 기업은행(2011),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BK의 대응』, p. 16

정부는 은행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의도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는 달성하였다. 국내은행들이 MOU에따라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동참한 결과, 2009년 중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은 67.7%로 MOU상 목표비율 50.4%를 초과 달성할수 있었다.<sup>26)</sup> 그러나, 2009년 12월말로 MOU의 유효기한이 종료되자, 이듬해인 2010년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중소기업대출을 회수함으로써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 3) Fast-Track 프로그램 시행

2008년 하반기 들어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업체수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Fast-Track 프로그램을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은행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었다.

은행은 Fast-Track 프로그램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A~D등급으로 분류한 후 등급별로 차별적인 지원을 하였다. Fa st-Track 프로그램 시행 이후 2010년 12월말까지 모두 11,714개 중소기업에 29조 5,723억원이 지원되었다.27)

신용위험 평가등급	지원방식	지원내용
A등급	해당은행 단독지원	신규자금, 만기연장, 금리인하,
B등급	채권은행 공동지원	보증지원, 출자전환 등
C등급	워크아웃 추진	모증시천, 물사신완 중 
 D등급	청산 등 조기정리	_

[표 2-6] 신용위험 평가등급별 차등지워 내용

<sup>26)</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20~221

<sup>27)</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p.266

#### 4)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 자동 결의

2009년 2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외국계 은행을 제외한 15개 국내은행은 '은행 및 금융당국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2009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대출 166조원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자율 결의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월평균 만기연장률은 2008년도 88.2%에서 2009년도 91.7%로 높아졌으며, 2010년 상반기에도 91.0%의 수준을 유지하였다.<sup>28)</sup>

#### (3) 글로벌 금융위기시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 현황

정부의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은 어느 정도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하지만, 은행별로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한 수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특수은행과 그렇지 않은 시중은행 간에 그러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은행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정책을 전개한 2년간(2009~2010년)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은 2008년 대비 4.4% 증가한 18조 6,868억원이 순증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2.2% 수준으로 금융위기 이전에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006년 17.5%, 2007년 22.8%, 2008년 13.3%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은행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이 2010년말 기준으로 20 08년말 대비 각각 11.1%와 12.6% 증가한 반면에, 시중은행은 1.2%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달랐음을 말해준다. 특수은행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지방은행 또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시중은행은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더 치중하여 중소기업대출에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sup>28)</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71

[표 2-7] 글로벌 금융위기시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 말	2010년 말		2008년 대비	
, E	2000 C E	2010 년 년	순증액	증가율	순증점유비
기 업	733,944	889,587	155,643	21.2	83.3
산 업	123,398	142,599	19,201	15.6	10.3
수출입	15,530	23,715	8,186	52.7	4.4
수 협	78,738	82,130	3,392	4.3	1.8
농 협	518,923	496,130	-22,793	-4.4	-12.2
특수은행	1,470,533	1,634,162	163,628	11.1	87.6
SC제일	67,262	71,306	4,044	6.0	2.2
한국씨티	70,589	73,764	3,175	4.5	1.7
국 민	602,321	619,446	17,125	2.8	9.2
우 리	580,389	588,968	8,580	1.5	4.6
하 나	298,251	293,530	-4,721	-1.6	-2.5
신 한	524,136	512,662	-11,474	-2.2	-6.1
외 환	207,069	163,010	-44,059	-21.3	-23.6
시중은행	2,350,016	2,322,687	-27,329	-1.2	-14.6
전 북	23,657	31,175	7,518	31.8	4.0
경 남	84,915	97,662	12,747	15.0	6.8
부 산	120,303	136,064	15,761	13.1	8.4
대 구	105,150	114,937	9,787	9.3	5.2
제 주	14,115	15,136	1,021	7.2	0.5
광 주	53,026	56,762	3,736	7.0	2.0
지방은행	401,166	451,735	50,569	12.6	27.0
국내은행	4,221,716	4,408,584	186,868	4.4	100.0

<sup>\*</sup> 은행경영통계(원화대출금 기준)

특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함께 일반은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급증하는 금융위기시에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커 대출운용의 폭이 제한적인데다 지역 중소기업과 장기간에 걸쳐 관계형 금융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영향 을 덜 받은 반면에, 시중은행은 외부충격에 대해 중소기업대출을 더욱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용상, 2006)

은행별로 보면, 중소기업 전문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의 역할이 단연 돋보인다. 기업은행은 2008년 대비 21.2% 증가한 15조 5,643억원을 순증하여 은행권 전체 순증액의 83.3%를 지원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기업은행의 2008년말 기준 중소기업대출 시장점유비가 17.8%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정책기능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할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역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이 1조 9,20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15.6%를 순증하였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이 -2조 2,793억원 감소한 점이 눈에 띤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8%, 1.5%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외환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각각 21.3%, 2.2%, 1.6% 감소하였다. 그리고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6.0%, 4.5%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에 있어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은행은 6개 은행 모두 순증하였으며, 금융위기시 특수은행을 보완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수 있다.

### 제 4 절 선행연구 검토

### 1. 선행연구의 특징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기존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그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삼은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다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정부의 금융지원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주로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인 정책금융에 관한 것으로 분석대상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중소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서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것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하지만,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고 정책에 대한 측정방법이 용이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융지원정책의 목적과 방향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관심대상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특수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설령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지라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1997년 외환위기나 2003년 카드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특수은행은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그로 인해 해당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 2. 유사연구 검토

선행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개념을 확장함으로써 유사연구를 찾을 수 있었고,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가설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기시 정부가 은행을 통해 펴고자 했던 금융지원정책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적극 이행했던 은행들은 비록 내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대출확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차원의 대출확대 전략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은행의 대출확대 전략이 은행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등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박정수·서정호·박보경(2013)은 대출확대가 은행의 수익성과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보고자 국제 은행패널 자료인 Bankscope DB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로 OECD 국가 중 주요 19개국의 약 14,6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결과, 대출확대는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순이자마진(NIM)등 수익성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출확대가 정상적인 수준인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더 나아가 과도한 수준의 대출확대는 정상적인 수준의 대출확대가 수익성 지표를 높이는 효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9한편, 대출확대는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여 위험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수익여신비율은 반대로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수준의 대출확대는 대손충당금과 무수익여신비율 등에 반영되는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정호(2012)의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일반은행들이 외형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온 대출확대 경쟁이 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수익

<sup>29)</sup> 개별은행 대출증가율이 해당 국가의 평균 대출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과 도한 대출확대로 보았다.

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대출자산이 부실화되기까지는 대출실행 후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시차변수를 사용한 패널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개별은행의 대출증가율이 높아질수록 1~2년의 시차를 두고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급격한 대출확대전략은 대출금리 경쟁으로 인해 대출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적정한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여 최소 2기에 걸쳐 이자수익성(NIM)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서지용(2010)은 중소기업의 '경기순응성' 및 '부실은행 제약' 가설에 근거하여 경기와 은행의 리스크 수준이 중소기업대출의 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대출 결정 변화에 따른 대출규모 변화가 은행의 미래전망을 보여주는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기 및 은행여신 건전성이 장·단기적으로 중소기업대출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기 및 은행 리스크 수준변화에 따른 대출액 변화는 은행의 주식수익률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다. 이는 경기상승 및 은행의 리스크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할 경우 은행업종의 주식수익률도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연구원(2010)에서는 "금융위기 하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경영성과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2009년 중에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기업은행과 그렇지 않은 시중은행들의 경영성과에 미친 차이를 분석하였다. 2009년 중 기업은행은 은행권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19.6조원)의 53%인 10.4조원을 지원한 반면, 주요 시중은행은 우리은행이 3.3조원, 국민은행이 2.3조원, 하나은행이 1.2조원, 신한은행이 0.6조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결과적으로는 기업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시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수익성 또한 시중은행대비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2008년과 2009년의 경영성과를 단순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대출 실적과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2009년도 중에 확대한 중소기업대출이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반영되기에는 충분한 시차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외국 연구사례로 "Foos et al.(2010)은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16개 국가 16,000개 은행 정보(Bankscope)를 이용하여 비정상적 대출증가(abnormal loan growth)가 은행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비정상적 대출증가가 실행된 이후 3년간 은행 위험이 증대되고, 수익성이 하락한다고 보았다."(서정호, 2012)

## 제 5 절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대출 확대 정책을 펼쳤는데, 그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이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와의 차별성과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을 수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있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정부정책이 정책의 수혜대상인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작 은행을 비롯한 정책수행기관에는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는지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정책의 성패여부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책수행기관으로서는 존립목적상자신들의 경영성과에 미칠 영향과는 무관하게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개념을 기존연구에서 다룬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서 등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에 비해 확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정부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고자 했던 다양한 정책을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 보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정부정책에 대한 이행수준으로 정의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 공급하고자 했던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우리 경제사에 손꼽힐만한 경제 위기에 이루어진 은행의 대출확대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 가 경기상승기에 은행내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대출확대에 관한 분석이었 다면, 본 연구는 경기하강기에 자발적인 내부전략이 아닌 외부의 압력에 의한 대출확대에 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은행유형별로 그리고 이행수준별로 살펴보았다. 은행유형별 소유구조 및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영업기반 등의 차이가 정부정책의 차별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가장 이상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정부 정책입안자 및 은행유형별로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 제 3 장 연구설계

##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이 은행의 경영성과, 즉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등 경영성과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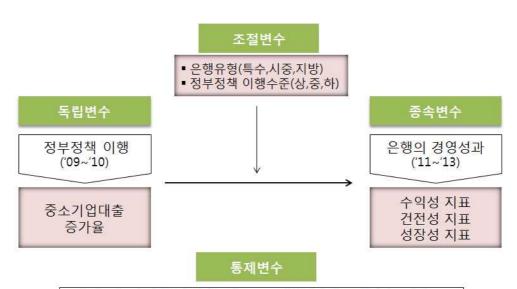
첫째, 금융위기 기간(2009~2010년) 동안의 정부정책 이행이 금융위기 이후(2011~2013년)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은행유형(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정부정책 이행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그 이행수준(상위그룹, 중간 그룹, 하위그룹)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위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그림 3-1]과 같은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우선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해 금융위기 당시 (2009~2010년) 2년간의 연평균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수익성 지표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사용하였으며, 건전성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율을,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통제변수는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설정하였다. 내적요인으로는 은행별 총자산 규모, 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대출비중,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증가율, 비이자손익비중 등을 사용하였으며, 외적요인으로는 거시경제변수로 활용되는 실질GDP성장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사용하였다. 한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연구주제를 분석하기 위해 은행유형 더미변수와 정부정책 이행수준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 내적요인: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대출비중, 비이자손익비중 등
- 외적요인 : 실질GDP성장률, 기준금리

## 제 2 절 연구가설

### 1.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대출확대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경기상황, 개별은행의 재무특성과 리스크 관리능력 그리고 대출확대 수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즉, 여러 제반조건에 따라 은행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예대마진이 주수익원인 국내 은행의 특성상 대출규모의 증가는 이익규모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외형 또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우수한 경영성과를 담보하지 못한다. 새로유입되는 대출자산의 질과 마진폭이 양호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성장성 지표까지 좋아질 수도 있으나,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까지 대출이 확대되어 부실여신이 증가하거나 은행간 대출금리경쟁으로 적정한 마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모두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은행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특히, 은행이 적정한 수준의 대출확대를 넘어 급격하게 대출자산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심사기준을 완화하거나 영업에 더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은행들은 대출자산 확대전략을 구사하는 은행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적 부실자산을 의도적으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반면에, 대출자산의 확대가 새로운 우량고객 창출 및 여신에 대한 리스크평가능력 제고에 기인한다면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거나 위험성은 줄어들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호황기 중에는 시장으로부터 수요가 자연스럽게 증대되기 때문에 경기가 급락하지 않는 한 이러한 역신들은 상당기간 우량여신으로 남게 된다.(서정호, 2012)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중소기업대출 확대에는 위

논의에서와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당시는 정상적인 경기상황이 아닌 리스크가 급증하는 시기에 은행이 스스로 내·외부 여건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확대한 것이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서담보대출 등에 대한 금리인하의 요구 등이 있어 은행은 적정마진에 대한 희생을 감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은행일수록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그 당시 일시적인 유동성부족에 빠진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지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해당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 한다면 은행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저성장에 따라중소기업들이 아직 활력을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정책보다는 대출확대로 인해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중소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거나 회수했던 점도 이런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는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는 달리 성장성 측면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은행의 총자산 중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인 만큼 금융위기 당시(2009~2010년)에 중소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은행은 총자산이 증가하는 주요한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중소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축소한 은행은 총자산 증가의 둔화가 불가피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수신거래 고객에 비하여 예·적금, 수익증권, 방카슈랑스, 신용카드 등 부수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은 행의 일반적인 영업행태를 감안할 때, 대출 확대는 단순히 대출자산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대출이외 자산의 증가도 동시에 수반되어 총자산이 증가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금융위기시에 지원한 대출이 그 이후 3년에 걸쳐 부실화되어 해당 부실대출이 대량 매각되거나, 자본건전성 악화로 추후 대출을 확대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은행의 성장성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위 가설 1 검증을 위한 회귀식(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회귀식(1) :  $Y_{it} = \alpha + \beta LoanA\,GR_i + \gamma Con\,Var_{it} + \epsilon_{it}$ 
  - $-Y_{it}$ :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고정이하여신비율, 대손충당금적립률, 총자산증가율
  - LoanAGR<sub>i</sub>: 2009~2010년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 $Con Var_{it}$  : 총자산 로그값, 자기자본비율, 비이자손익비중, 중소기업대출 비중,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실질GDP성장률, 기준금리
  - i: 개별은행, t: 연도,  $\epsilon_{it}$ = 오차항

## 2.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별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은행유형에 따라 설립목적 및 영업전략 그리고 자산포 트폴리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을 이행한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는 향후 경제위기 발생시 정부가 은행유형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리고 은행 또한 유형별로 정부 정책이 내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2.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위 가설 2 검증을 위한 회귀식(2)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회귀식(2) :  $Y_{it} = \alpha + \beta_1 LoanA \ GR_i + \beta_2 BankDM1_i + \beta_3 BankDM2_i + \beta_4 LoanA \ GR_i \times BankDM1_i + \beta_5 LoanA \ GR_i \times BankDM2_i + \gamma Con \ Var_{it} + \epsilon_{it}$ 
  - BankDM1 : 은행유형 더미변수1(시중은행 1, 특수은행/지방은행 0)
  - BankDM2 : 은행유형 더미변수2(지방은행 1, 특수은행/시중은행 0)
  - \* 다른 변수는 회귀식(1)과 동일

### 3. 은행의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별로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에 따라서도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가정하였다. 대출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수준에 따라서 중소기업대출증가율 1%p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어느 수준으로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바람직했는지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 가설 3.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1.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2.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3.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금융 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위 가설 3 검증을 위한 회귀식(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회귀식(3) :  $Y_{it} = \alpha + \beta_1 LoanA GR_i + \beta_2 LoanA GRDM1_i + \beta_3 LoanA GRDM2_i + \beta_4 LoanA GR_i \times LoanA GRDM1_i + \beta_5 LoanA GR_i \times LoanA GRDM2_i + \gamma Con Var_{it} + \epsilon_{it}$
- Loan A GRDM1 : 정부정책 이행수준 더미변수1(중간 1, 상위/하위 0)
- Loan A GRDM2 : 정부정책 이행수준 더미변수2(하위 1, 상위/중간 0)
- \* 다른 변수는 회귀식(1)과 동일

## 제 3 절 변수측정

### 1.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정부정책 이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렸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은 그 실체가 명확하고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에 광의의 금융지원정책으로서 정부가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정책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정부정책 이행정도를 일반화하여 측정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다만, 금융위기시에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핵심은 분명 은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의 대외채무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대출 순증규모, 중소기업대출 비율 및 만기연장 등에 대해서 국내 18개 은행과 MOU를 체결하였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MOU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만기연장비율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을 유지하는 한편, Fast-Track 프로그램을 차질없이지원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핵심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대출을 급격히 회수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각 은행별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은행별로 '2009~2010년 2년간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얼마나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척도로 보았다. 2009년과 2010년 2년간으로 보는이유는 2008년 9월 금융위기 발발 이후 정부의 금융지원정책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부의 Fast-Track 프로그램이 2010년까지 활발하게 지원되었고, 2010년 이후에 경제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 2.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은행의 재무성과에 대한 지표로서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 측면을 가장 대표하는 지표들로 선정하였다.

우선,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 대비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주주가 제공한 자기자본 대비 당기 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나타내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을 사용하였다. 이 지표들은 수익성 지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로 은행이 자기 자본과 타인자본(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 표라고 할 수 있다.

건전성 지표로는 고정이하여신비율과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사용하였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총여신 중에서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이 문제시되는 여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건전성은 불량하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고정이하여신이라 함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 전성분류기준에 의거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에 대하여 여신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할때,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여신을 말한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이라 함은 문제여신, 즉 고정이하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얼마나 적립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다고할수 있다. 다만, 대손충당금적립률이 100%를 넘는 경우에는 문제여신으로 인한 손실을 적립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대비 금기에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체적인 외형적 성장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은행 총자산에서 중소기업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은행의 개별특성으로서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총자산 규모, BIS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대출 비중,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비이자손익 비중을 사용하였다.

총자산은 그 규모에 따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다를 수 있고, 리스크관리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총자산 로그값을 통제하였다. 그리고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은행의 위험부담행위가 적을 수도 있으나 대출자산 확대 등 적극적인 위험추구행위를 할 동기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위험추구행위의 적정성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자기자본비율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영업다각화를 나타내는 비이자손익 비중에 따라 수익성과 건전성 등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은행의 개별특성에 포함시켰다.(서정호, 2012)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은행별로 중소기업대출 비중, 즉 총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고, 대출자산 종류에 따라 부실율과 이자마진율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대출 비중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금융위기 당시(2009~2010년) 2년간의 연평균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이 2011~2013년 3년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3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중소기업대출 행대 또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을 통제하였다. 그 밖에 은행의 개별특성 이외에도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GDP성장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거시경제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3-1] 변수별 측정방법

구 분	변수명	변수 산식	비고			
독립변수	정부정책 이행	■ 2009~2010년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조절변수	은행유형 더미변수	<ul> <li>시중은행 더미변수: 시중은행 1, 특수은행/지방은행 0</li> <li>지방은행 더미변수: 지방은행 1, 특수은행/시중은행 0</li> </ul>				
<u> </u>	정부정책 이행수준 더미변수	■ 중간그룹 더미변수 : 중간그룹 1, 상위그룹/하위그룹 0 ■ 하위그룹 더미변수 : 하위그룹 1, 상위그룹/중간그룹 0				
	총자산이익률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100	수익성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T 7/8			
フょいと	고정이하여신비율	■(고정이하여신 / 총여신) × 100				
종속변수	대손충당금적립률	• (총대손충당금잔액 / 고정이하여신) × 100	건전성			
	총자산증가율	• {(금기 총자산 - 전기 총자산) / 전기 총자산} × 100	성장성			
	총자산	• 로그값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 100				
	중소기업대출비중	▪(중소기업대출 / 총대출) × 100	내적			
통제변수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증가율	- ' - ' 저기 중소기업대축금액) /				
	비이자손익비중	비중 •(비이자손익 / 총영업이익) × 100				
	실질GDP성장률	• 한국은행 고시기준	 외적			
	기준금리	▪ 매월말 기준금리 평균값	요인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 제 1 절 기술통계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이를통해 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현황에 대해 이해하고 은행유형별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분석대상 기간은 독립변수의 경우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2년이며, 종속변수와 통제변수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 3년으로 하였다.

우선, 독립변수인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 %p)

변수명	은행유형	평균 <sup>주)</sup>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범위
= 0 0 -1 1	전체은행	4.18	7.18	23.58	-11.27	34.85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특수은행	8.22	9.10	23.58	-2.22	25.80
중조기됩내물 증가율	시중은행	-0.83	4.59	2.96	-11.27	14.23
<u> </u>	지방은행	6.66	4.01	14.79	3.46	11.33

주) 개별은행별 연평균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의 산술평균

국내 18개 은행들은 금융위기 당시(2009~2010년) 정부정책 이행수준, 즉 연평균 중소기업대출증가율 평균이 4.18%, 표준편차가 7.18%이며, 최 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23.58%(수출입은행)와 -11.27%(외환은행)으로 매우 넓은 범위(34.85%p)를 보이고 있다. 은행유형별로 연평균 중소기업대출증가율 평균은 특수은행(8.22%)>지방은행(6.66%)>시중은행(-0.83%)의순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선정한 은행의 경영성과 지표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 %p)

	변수명	은행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범위
		전체은행	0.46	0.34	1.50	-1.01	2.51
	총자산	특수은행	0.26	0.44	0.96	-1.01	1.98
수	이익률	시중은행	0.50	0.29	1.50	0.13	1.37
익		지방은행	0.59	0.23	1.09	0.22	0.87
ㅋ 성		전체은행	6.39	4.14	17.72	-9.08	26.81
78	자기자본	특수은행	3.72	4.93	11.94	-9.08	21.02
	이익률	시중은행	6.69	3.52	17.72	1.33	16.39
		지방은행	8.27	2.96	14.04	3.54	10.50
		전체은행	172.78	78.74	534.12	91.25	442.87
	대손충당금	특수은행	189.21	136.03	534.12	91.25	442.87
건	적립률	시중은행	180.21	41.21	296.44	98.06	198.38
건 전		지방은행	150.42	35.48	227.08	96.43	130.65
신 성		전체은행	1.43	0.46	3.07	0.65	2.42
78	고정이하	특수은행	1.68	0.59	3.07	0.65	2.42
	여신비율	시중은행	1.35	0.43	2.99	1.04	1.95
		지방은행	1.30	0.27	1.86	0.94	0.92
성		전체은행	5.68	5.77	19.90	-10.47	30.37
장	총자산	특수은행	7.77	4.76	18.09	-0.99	19.07
ੱð 성	증가율	시중은행	1.91	5.09	10.63	-10.47	21.10
		지방은행	8.33	5.07	19.90	-1.71	21.61

총자산이익률(ROA)부터 살펴보면, 국내 18개 은행들의 총자산이익률은 평균이 0.46%, 표준편차가 0.34%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1.50%(외환은행, 2011년)와 -1.01%(산업은행, 2013년)이다. 은행유형별 총자산이익률 평균은 지방은행(0.59%)>시중은행(0.50%)>특수은행(0.26%)의 순을 보이고 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평균이 6.39%, 표준편차가 4.14%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17.72%(외환은행, 2011년)와 -9.08%(산업은행, 2013년)이다. 은행유형별로 자기자본이익률 평균은 지방은행(8.27%)>시중은행(6.69%)>특수은행(3.72%)의 순을 보이고 있다.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 등 수익성 지표 모두 지방은행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수은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음 건전성 지표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평균이 172.78%, 표준편차가 78.74%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534.12%(수출입은행, 2012년)와 91. 25%(수협은행, 2013년)이다. 은행유형별로 대손충당금적립률 평균은 특수은행(189.21%)>시중은행(180.21%)>지방은행(150.42%)의 순을 보이고 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평균이 1.43%, 표준편차가 0.46%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3.07%(산업은행, 2013년)와 0.65%(수출입은행, 2011년)이다. 은행유형별로 고정이하여신비율 평균은 특수은행(1.68%)>시중은행(1.35%)>지방은행(1.30%)의 순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 지표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손충당금적립률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 지표에서도 지방은행이 가장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수은행이 가장 낮은 수준을보이고 있다.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평균이 5.68%, 표준편차가 5.77%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이 각각 19.90%(전북은행, 2011년)와 -10.47%(SC제일은행, 2013년)이다. 은행유형별로 총자산증가율 평균은 지방은행(8.33%)> 특수은행(7.77%)>시중은행(1.91%)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기간 동안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율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3]과 같다.

[표 4-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 조원, %, %p)

변수명	은행유형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범위
	전체은행	113	94	287	3	284
총자산	특수은행	131	80	224	22	202
규모	시중은행	176	87	287	59	228
	지방은행	25	15	47	3	44
	전체은행	14.3	1.5	18.0	10.6	7.4
자기자본	특수은행	13.3	1.6	15.7	10.6	5.0
비율	시중은행	15.1	1.4	18.0	13.4	4.6
	지방은행	14.1	1.0	16.0	12.6	3.3
	전체은행	46.2	17.6	76.9	18.8	58.1
중소기업대출	특수은행	45.4	20.7	76.9	18.8	58.1
비중	시중은행	32.1	6.1	41.1	19.5	21.6
	지방은행	63.2	4.0	70.7	56.9	13.8
당해연도	전체은행	5.1	13.3	81.9	-16.6	98.5
중소기업대출	특수은행	8.2	21.3	81.9	-16.6	98.5
8 도기 됩내릴 증가율	시중은행	-1.2	6.4	9.5	-15.2	24.6
371 E	지방은행	9.9	6.6	29.2	-2.3	31.5
	전체은행	10.4	15.6	58.3	-12.9	71.2
비이자손익	특수은행	15.0	24.5	58.3	-12.9	71.2
비중	시중은행	15.9	7.2	39.6	7.7	31.9
	지방은행	0.1	5.6	11.6	-8.8	20.4

총자산 규모부터 살펴보면, 국내 18개 은행들의 총자산은 평균이 113 조원, 표준편차가 94조원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287조원(국민은행, 2013년)와 3조원(제주은행, 2011년)으로 은행간 총자산 규모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은행유형별로 총자산 평균은 시중은행(176조원)>특수은행(131조원)>지방은행(25조원)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 비해 규모가 매우 열세하다.

자기자본비율은 평균이 14.3%, 표준편차가 1.5%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18.0%(한국씨티은행, 2013년)와 10.6%(수출입은행, 2011년)로 7. 4%p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은행유형별 자기자본비율 평균은 시중은행 (15.1%)>지방은행(14.1%)>특수은행(13.3%)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은행유형간에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대출 비중, 즉 총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이 46.2%, 표준편차가 17.6%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76.9%(기업은행, 2012년)와 18.8%(수출입은행, 2011년)로 매우 넓은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유형별로 중소기업대출 비중 평균은 지방은행(63. 2%)>특수은행(45.4%)>시중은행(32.1%)의 순을 보이고 있다. 지방은행은 특수은행과 시중은행보다 높았으며,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평균이 5.1%, 표준편차가 13.3%이며, 최댓값과 최솟값은 각각 81.9%(수출입은행, 2012년)과 -16.6%(수출입은행, 2011년)으로 나타났다.30) 은행유형별로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증가율평균은 지방은행(9.9%)>특수은행(8.2%)>시중은행(-1.2%)의 순을 보이고있으며, 시중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마이너스(-)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이자손익 비중은 평균이 10.4%, 표준편차가 15.6%이며, 최댓값과 최 솟값은 각각 58.3%(수출입은행, 2013년)와 -12.9%(수협은행, 2013년)로 매우 넓은 분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은행유형별 비이자손익 비중 평균은 시중은행(15.9%)>특수은행(15.0%)>지방은행(0.1%)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 총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자순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up>30)</sup> 수출입은행은 2011년도에는 -16.6%, 이듬해인 2012년에는 81.9%의 증가율을 보임

##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본격적으로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들 간의 관련성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상관관계의 정도, 즉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지고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는 낮아진다. 그리고 (+)는 정의 방향을, (-)는 부의 방향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경우 높은 선형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은행의 수익성, 건전성, 성장성을 나타내는 각각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독립변수인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증 가율'은 종속변수 중 총자산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는 유의미한 부 (-)의 상관관계가,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총자산증가율에는 유의미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총자 산증가율과의 상관관계는 0.4 이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기준금리가 가장 많은 종속변수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그리고 총자산증가율에는 정(+)의 상관관계, 대손충당금적립률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자본비율과 총자산증가율,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자기자본이익률, 비이자손익 비중과 대손충당금적립률, 기준금리와 총자산이익률 및 자기자본이익률간의 상관관계는 0.4 이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자산 규모와 중소기업대출 비중, 중소기업대출 비중과 비이자손 익 비중간의 상관계수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분산팽창계수(Varian ce Influence Factor)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계수 값이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표 4-4]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			
	구 분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대손 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증가율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총자산 규모	자기자본 비율	중소기업 대출비중	당해연도 중기대출 증가율	비이자 손익 비중	실질 GDP 성장률	기준 금리
독립 변수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212 *	220 *	.487 ***	152	.408 ***	1.000							
	총자산 규모	069	119	.121	.103	157	310 **	1.000						
	자기자본 비율	.089	.009	235 **	.069	524 ***	495 ***	.110	1.000					
	중소기업 대출비중	.293	.422	343 ***	.011	.366 ***	.193 *	544 ***	288 **	1.000				
통제 변수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 증가율	040	023	.325 ***	143	.186	.419 ***	186 *	368 ***	.268	1.000			
	비이자손익 비중	.134	045	.654 ***	332 ***	.006	.248	.401 ***	139	629 ***	.033	1.000		
	실질GDP 성장률	.138	.131	038	.005	.348 ***	.000	012	124	.015	061	.137	1.000	
	기준금리	.430 ***	.436 ***	.213	365 ***	.156	.000	025	137	.010	015	.116	.072	1.000

## 제 3 절 가설검증 결과

### 1. 가설 1의 검증결과

## (1) 수익성 지표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1)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5]와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2개 지표에서 모두 60% 이상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정부정책 이행과 수익성과의 관계

구 분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이익률 (ROE)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024***	275 <b>**</b> *
총자산(로그값)	018	062
 자기자본비율	.073***	.547*
중기대출비중	.020***	.237***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001	012
비이자손익비중	.021***	.185***
실질GDP성장률	.003	.116
기준금리	.507***	6.419***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673	.607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정부정책 이행은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유의미한(p<0.01)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은 해당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p 상승할수록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 각각 0.024%p, 0.275%p 씩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은 채택된다.

#### 가설 1-1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그런데, 이 결과는 박정수·서정호·박보경(2013)의 연구에서의 대출확대가 일반적으로 총자산이익률(ROA)과 순이자마진율(NIM) 등 수익성에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상반된다.31) 이렇게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가 나온 원인은 분석대상 및 기간의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연구가 Bankscope DB에서 제공하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국제은행 연간 패널자료를 가지고 OECD 국가 중주요 19개국의 약 14,600개 은행을 대상으로 폭넓게 이루어진 반면에, 본연구에서는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정부 정책에 의한 국내은행의대출확대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당시 국내 은행들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 호응하여 각종 금리인하 등을 실시함으로써 적정한 마진을 희생한 결과로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된다.32) 또한,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 의 신용등급 하락과 부실여신 증가에 따른 손실발생 및 대손충당금 적립

<sup>31)</sup> 참고로 동 연구에서도 개별은행 대출증가율이 해당 국가의 평균 대출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대출이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대출확대가 미치는 수익성 증대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sup>32)</sup> 국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06년 6.20%, 2007 년 6.72%, 2008년 7.31% 수준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 5.65%, 2010 년 5.68%로 크게 떨어짐(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증가 등도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떨어뜨렸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는 총자산이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모두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반면, 자기자본비율, 중소기업대출비중, 비이자손익비중, 기준금리는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유의미한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 기준금리가 은행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는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모든 수익성 지표에 유의미한(p<0.01)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그 강도 또한 다른 변수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은행들의 예대마진폭도 확대되는데, 예대마진에 의한 수익창출이주를 이루는 국내은행의 특성상 기준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이자손익비중이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화 외 3 인(2009)이 1993년부터 2007년까지 66개 국가의 3,320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비이자부문의 수익비중이 높을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2) 건전성 지표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1)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6 ]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종속변수가 대손충당금적립률의 경우에는 55.7%,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에는 20.8%의 설명력을 보였다.

[표 4-6] 정부정책 이행과 건전성과의 관계

구 분	대손충당금적립률 (CR)	고정이하여신비율 (NPL)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3.571**	010
총자산(로그값)	-1.127	004
자기자본비율	1.975	007
증기대출비중	797	001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1.355**	001
비이자손익비중	2.322***	009*
실질GDP성장률	-12.564	057
기준금리	58.174*	364*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557	.208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정부정책 이행은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는 유의미한(p<.05)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은 해당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높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p 상승할수록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을 3.571%p씩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출확대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을 높여위험도에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박정수·서정호·박보경(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정부정책 이행은 다른 건전성 지표인고정이하여신비율에는 약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정책 이행이 전체적인 고정이하여신 규모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당시 외부충격으로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전체적인 대출자산의 질이 악화되면서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지원한 은행일수록 저신용기업과 잠재부실기

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불가피하게 컸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는 아래와 같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및 제29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따르면,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는데, 대출채권의 종류 및 자산건전성분류단계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대출채권의 경우 "정상" 분류 채권의 0.85~0.90% 이상, "요주의"분류 채권의 7% 이상, "고정"분류 채권의 20% 이상, "회수의문"분류 채권의 50% 이상, "추정손실"분류 채권의 100% 상당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한, 은행들은 "정상" 여신이라 하더라도 신용등급에따라 적립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수록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의 순으로 즉,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나쁠수록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높아지 며, 이로 인해 대손충당금적립률 상승은 전년도에 비해 질이 낮은 대출 채권의 비중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정부정책 이행은 기존보다 건전성이 악화된 대출자산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건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채택된다.

가설 1-2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한편, 통제변수로는 당해연도 중소기업대출증가율이 대손충당금적립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위기기간 동안의 중소기업대출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의 당해연도에

증가한 중소기업대출 또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높였음을 알 수 있다. 비이자손익비중도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권혁대·이은서(2013)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 일반은행(시중은행 7개,지방은행 6개)을 대상으로 연구한 대손충당금의 결정요인분석에서 비이자순이익은 대손충당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과 일치한다.

### (3) 성장성 지표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1)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7]$ 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36.8%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정부정책 이행과 성장성과의 관계

구 분	총자산증가율 (TA_IR)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223*
총자산(로그값)	.583
자기자본비율	-1.121**
증기대출비중	.099*
	033
비이자손익비중	004
실질GDP성장률	2.990**
기준금리	2.300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368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정부정책 이행은 일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에는 유의미한(p<.1)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금융위기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지원은 해당 은행의 총자산증가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p 상승할수록 은행의 총자산증가율이 0.223%p씩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정책 이행이 일반적으로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산의 질까지 확보되는 내실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채택된다.

가설 1-3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한편, 기타 통제변수로 실질GDP성장률은 총자산증가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제가 성장할수록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은행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가설 2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 이행수준이 동일하더라도 은행유형(특수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따라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식(1)에 은행유형에 따른더미변수 2개를 추가하였으며, 정부정책 이행변수와 은행유형 더미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더미변수는 특수은행을 기준으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시중은행 더미변수와 지방은행 더미변수로 하였다.33)

<sup>33)</sup> 시중은행 더미변수 : 시중은행 1, 특수은행 0, 지방은행 0 지방은행 더미변수 : 지방은행 1, 특수은행 0, 시중은행 0

## (1) 수익성 지표

가설 2-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2)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수익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8 ]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70% 이상으로 더미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회귀식(1)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표 4-8]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수익성과의 관계

구 분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이익률 (ROE)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중가율)	050***	605 ***
시중은행 더미	.072	1.884
지방은행 더미	049	869
(정부정책 이행)* (시중은행 더미)	.047**	.650 **
(정부정책 이행)* (지방은행 더미)	.045***	.588 ***
총자산(로그값)	021	220
자기자본비율	.016	268
중기대출비중	.023***	.279 ***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001	017
비이자손익비중	.030***	.305 ***
실질GDP성장률	047	574
기준금리	.396***	4.871 ***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764	.74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회귀식(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이행은 총자산이익률(ROA)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정적인 효과는 특수은행에 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일 때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별로 총자산이익률(ROA)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특수은행(-0.050), 지방은행(-0.005), 시중은행(-0.003)의 순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p 상승할수록 특수은행, 지방은행, 시중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을 각각 0.050%p, 0.005%p, 0.003%p씩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에는 은행유형에 따라 정부정책 이행이 미친 유의미한 영향의 크기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다르게 나타났다.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별로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특수은행(-0.605), 지방은행(-0.017), 시중은행(0.045)의 순으로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에는 부(-)의 영향을, 그리고 시중은행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 1%p 상승은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각각 0.605%p, 0.017%p씩 떨어뜨리는 효과를 미쳤던 반면에, 시중은행에는 0.045%p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이 수익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된다.

가설 2-1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결국,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수익성에 미치는 차등적인 영향을 볼 때,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그 영향의 크기가 미미했던 반면에, 특수은행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은행은 지방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정부정책 이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

다. 이에 대한 원인은 특수은행이 다른 유형의 은행보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정책적 역할을 다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경색으로 인한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토록 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였다. 이에 특수은행은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보다 선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였다. 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전용 특별자금 운용을 통해중소기업 기본우대 0.3%p 및 중소기업 시설자금 추가우대 0.2%p를 비롯하여 전략부문 특별시설자금 우대 0.3%p 등 최대 1.5%p 금리우대를 하였으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 특별인하를 통해 보증서 담보대출 및 할인어음에 대해 최고 1.0%p 대출금리 인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특수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Fast-Track 프로그램 대상기업과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해 이자 및 이자율 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34) 이렇듯 특수은행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결과 수익성 저하가 뒤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 (2) 건전성 지표

가설 2-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2)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건전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9 ]와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회귀식(1)에 비해설명력이 높아졌다.

<sup>34)</sup>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 대응』, p.268~270

[표 4-9]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건전성과의 관계

 구 분	대 <del>손충</del> 당금적립률 (CR)	고정이하여신비율 (NPL)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14.146***	023
시중은행 더미	82.622***	550***
지방은행 더미	88.837**	553*
정부정책 이행* 시중은행 더미	-14.421**	.031
정부정책 이행* 지방은행 더미	-14.620***	.014
총자산(로그값)	6.146	.492
 자기자본비율	10.570	023
중기대출비중	-1.288*	006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1.510**	003
비이자손익비중	906	011
실질GDP성장률	1.820	.055
 기준금리	88.906***	647***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651	.344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회귀식(1)에서는 정부정책 이행이 일반적으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미친 유의미한 영향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방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정부정책 이행이은행유형별로 대손충당금적립률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특수은행(14.146), 시중은행(-0.275), 지방은행(-0.474)의 순으로 특수은행에는 정(+)의 영향을, 그리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 1%p 상승은 특수은행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4.146%p 상승시킨 반면에,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에는 각각 0.474%p와 0.275%p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또 다른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대해서는 회귀식(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설명력도 부여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은행유형별로 건전성에 미치는 차등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고정이하여신비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대손충당금 적립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 형에 따라 건전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채택된다.

#### 가설 2-2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정부정책 이행이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대손 충당금적립률에 미친 영향의 차이이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은 비슷한수준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은행(14.146)의 대 손충당금적립률에는 정(+)의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반면에, 지방은행(-0.474)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데에는 2가지 원인을 추론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금융위기시 특수은행이 시장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거절한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을 해소하기 위해보증서 발급을 확대했으나, 시중은행들은 자본건전성을 위해 보증서 담보대출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을 실제 보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 지방은행이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설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형의은행에 비해 발달된 관계금융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기술력이 있고 비계량 정보 등이 양호한 기업을 적극 발굴

하여 적기에 대출을 지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해당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사업이 영위 가능하고, 지방은행은 우량한 대출자산 확보등 대출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상당히 개선됐을 것으로 보인다.

#### (3) 성장성 지표

연구가설 2-3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2)를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성장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4-10]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53.6%로 더미변수를 추가하지 않은 회귀식(1)에 비해 설명력이 높아졌다.

[표 4-10] 정부정책 이행과 은행유형별 성장성과의 관계

구 분	총자산증가율 (TA_IR)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430		
시중은행 더미	-3.785*		
지방은행 더미	2.555		
(정부정책 이행)* (시중은행 더미)	816*		
(정부정책 이행)* (지방은행 더미)	.255		
총자산(로그값)	2.236***		
자기자본비율	284		
중기대출비중	011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067		
비이자손익비중	085		
실질GDP성장률	3.559***		
기준금리	3.801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회귀식(1)에서는 정부정책 이행이 총자산증가율에 유의미한 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은행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은 높이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정책 이행은 특수은행에 비해 추가적으로 지방은행에는 정(+)의 영향을, 시중은행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시중은행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를 통해 볼때,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성장성에는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던 반면에, 정부정책을 소극적으로 이행한 시중은행의 성장성에는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결국,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확대가 은행의 성장성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유형에 따라 성장 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채택된다.

연구가설 2-3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3. 가설 3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부정책 이행수준에 따라서도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회귀식(1)에 정부정책 이행수준에 따른 더미변수 2개를 추가하였으며, 정부정책 이행 변수와의 상호작용항도 추가하였다. 더미변수는 상위그룹을 기준으로 중간그룹과 하위그룹의 경영성과 차이를 분석하고자 중간그룹 더미변수와 하위그룹 더미변수로 하였다.35)

<sup>35)</sup> 중간그룹 더미변수 : 중간그룹 1, 상위그룹 0, 하위그룹 0 하위그룹 더미변수 : 하위그룹 1, 상위그룹 0, 중간그룹 0

#### (1) 수익성 지표

가설 3-1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3)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에 따라 수익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11]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회귀식(1)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회귀식(2)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 4-11]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수익성과의 관계

구 분	총자산이익률 (ROA)	자기자본이익률 (ROE)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038**	432 <b>**</b>		
중간그룹 더미	243	-2.247		
하위그룹 더미	062	545		
(정부정책 이행)* (중간그룹 더미)	.031	.405		
(정부정책 이행)* (하위그룹 더미)	.029	.337		
총자산(로그값)	068	481		
자기자본비율	.059*	.329		
중기대출비중	.019***	.227 ***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001	012		
비이자손익비중	.023***	.213 ***		
실질GDP성장률	009	050		
기준금리	.475***	6.005 ***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739	.679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회귀식(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이행은 총자산이익률(ROA) 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모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정책 이행은 중간그룹과 하위그룹에 추가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쳐 정부정책 이행이 총자산이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에 미치는 일반적인 부(-)의 효과를 약화시켰으나, 이러한 차등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에 따라 수익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된다.

가설 3-1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수익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2) 건전성 지표

가설 3-2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3)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에 따라 수익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12]와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회귀식(1)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회귀식(2)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회귀식(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이행은 대손충당금적립률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정책 이행은 추가로 중간그룹과 하위그룹에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하위그룹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특히, 하위그룹의 경우 정부정책 이행이 대손충당금적립률에 미치는 일반적인 정(+)의 효과를 상쇄하여 대손충당 금적립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상위그룹과 소극적으로 이행한 하위그룹간에는 정부정책이 대손충당금적립률에 미치는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상위그룹에 속한 은행에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4-12]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건전성과의 관계

구 분	대손충당금적립률 (CR)	고정이하여신비율 (NPL)		
정부정책 이행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11.981***	028		
중간그룹 더미	127.683**	.127		
하위그룹 더미	71.230*	192		
(정부정책 이행)* (중간그룹 더미)	-8.994	105		
(정부정책 이행)* (하위그룹 더미)	-12.785**	.058		
총자산(로그값)	23.010**	.009		
자기자본비율	8.373	083		
중기대출비중	.001	007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1.389**	003		
비이자손익비중	1.425	011		
실질GDP성장률	-7.306	.038		
기준금리	72.044**	693***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710	.363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한편,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건전성 지표로 삼았을 때에는 회귀식(1)에서 와 마찬가지로 정부정책 이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부정책 이행수준에 따른 그룹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은 2개의 건전성 지표 중에서 1개의 지표에서 이행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가설 3-2은 약한 수준으로 채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설 3-2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 행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 (3) 성장성 지표

가설 3-3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식(3)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기간 동안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성에 어떠한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 표 4-13]과 같다. 모형적합도( $R^2$ )는 회귀식(1)에 비해서는 다소 높았으나, 회귀식(2)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다.

[표 4-13] 정부정책 이행과 이행수준별 성장성과의 관계

7 H	총자산증가율			
구 분	(TA_IR)			
정부정책 이행	11.4			
(금융위기시 중기대출증가율)	.114			
중간그룹 더미	-10.317*			
하위그룹 더미	-5.012			
(정부정책 이행)*	1.373			
(중간그룹 더미)	1.070			
(정부정책 이행)*	278			
(하위그룹 더미)	.210			
총자산(로그값)	.077			
자기자본비율	778			
중기대출비중	.025			
 당해연도중기대출증가율	041			
비이자손익비중	077			
실질GDP성장률	3.356***			
기준금리	3.068			
$-$ 조정된 모형적합도 $(R^2)$	.456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

회귀식(1)에서는 정부정책 이행이 총자산증가율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정책 이행수준별로 구분하여 살

퍼보았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은 높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정책 이행은 상위그룹에 비해 추가로 중간그룹에는 정(+)의 영향을, 하위그룹에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정부정책 이행이 이행수준에 따라 성장성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3은 기각된다.

가설 3-3 검증결과

금융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하는 것은 은행의 성장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 [표 4-14] 가설검증 결과 요약

			연 구 가 설	검증
				결과
가	철 1	_	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	
		하는	것은	
	가설	1-1	은행의 <b>수익성</b> 에 <b>부(-)의 영향</b>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2	은행의 <b>건전성</b> 에 <b>부(-)의 영향</b> 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1-3	은행의 성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 :	, 급용	금융의	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	
<b>7</b> †4	철 2	하는	것은	
	7 <u>].</u> ኢት	가설 2-1	은행의 수익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채 택
	∠ L.,5		미칠 것이다.	세백
	7] 2-	가설 2-2	은행의 건전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ചി ലി
	ノ f ~ 色	2-2	미칠 것이다.	채택
	7] <u>}</u>	100	은행의 성장성에 은행유형에 따라 차둥적인 영향을	
	가설 2-3		미칠 것이다.	채택
-1 z	.J 0	금융의	위기시 은행이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이행	
751	철 3	하는	것은	
	-1 21		은행의 수익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
	가설	3-1	미칠 것이다.	기각
	-1 21 O O	1 2 2	은행의 건전성에 이행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영향을	्रो हो
<b>가</b> 설	3-2	미칠 것이다.	채택	
/ 1 1		. 0 2	미칠 것이다.	. 4 . 1

#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에 따라 은행이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이 과연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은행유형 및 정부정책 이행수준에 따라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차등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지 않은 정부정책과 은행의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 경제위기시에 정부 및은행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나타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의 상반된 중소기업 대출행태가 실제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차이를 불러왔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은행 또한 자본건전성이 악화되면서경기변동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보임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소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마다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수준은 달랐다. 시중은행은 소극적인 태도를취한 반면에, 특수은행은 금융위기라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고, 지방은행 또한 지역소재 중소기업에 대출을 확대지원하였다. 이러한 차이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난 이후 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기간(2009~2010년) 동안 개별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으로 정의하였고, 금융위기 이후(2011~2013년) 은행의 경영성과로 크게 수익성, 건전성 그

리고 성장성 측면을 살펴보았다.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이익률과 자기 자본이익률을, 건전성 지표로는 대손충당금적립률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그리고 성장성 지표로는 총자산증가율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정부정책이은행유형 및 이행수준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친 차등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은행유형 더미변수와 정부정책 이행수준 더미변수 그리고 상호 작용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재무적 특성과 거시경제변수를 통제하였다. 이 변수들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은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성 측면에는 다소 약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경기 확장기에 은행이 성장추구를 위한 전략으로 대출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대출확대가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또한, 정부정책 이행이 금융위기 이후 3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미친 영향임을 감안할 때, 그 당시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아직 회복단계에접어들지 못해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은행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정부정책 이행은 은행유형에 따라서도 차등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한 특수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전반적으로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특수은행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정부정책 이행을 보인 지방은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했으며,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시중은행 또한 부정적인 영향이 작았고 일부 지표의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시중은행은 부실가능성이 적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데중점을 두었고, 지방은행은 관계형 금융의 장점을 살려 비재무적 정보가

양호한 기업들을 발굴·지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특수은행은 정부의 시장조정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거절한 낮은 신용등급의 중소기업에까지 대출을 확대 공급한 결과로 보인다.

셋째, 정부정책 이행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이행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일하게 건전성 지표 중 대손충당금적립률에만 차등적인 영향이 나타났는데, 정부정책을 가장 소극적으로 이행한 하위그룹에는 정부정책 이행이 다른 그룹과 달리 대손충당금적립률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서 이행수준에 차이를 보인 은행유형별로 차등적인 영향이 나타났던 것을 감안할때, 정부정책 이행수준별로도 차등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제외하고는 정부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행한 그룹, 중간 수준으로 이행한그룹, 그리고 가장 소극적으로 이행한 그룹 간에 반대되는 영향이 나타나거나 영향의 크기가 차등적이지는 않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단순히 중소기업대출을 많이 확대함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니라 특수은행이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은행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특수은행의 경영성과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특히 특수은행은 정부의정책수단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그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금융위기시에 은행이 정부정책을 이행한 것은 대체로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은행이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를 따르는 게 은행의 경영성과에는 보다 더 유리하다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를 확신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커다란 경제위기가 다시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대출 시장에서는 또다시 시장실패가 뒤따를 것이고, 정부가 특수은행으로 하여금중소기업대출 확대정책을 펴는 일련의 반복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금융지원정책에는 큰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과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시에도 시장에 의해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금융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은행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세부적으로 정부와 각 은행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우선, 정부는 금융위기시에도 은행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여 경제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국가 실물경제가 회복되는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경제위기시 중소기업대출을 자발적으로 확대하는 은행에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금융위기 시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은행에는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며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특수은행은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심사 역 량과 리스크관리 역량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 부의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해당은행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 하고 그에 따른 자기자본 적정성이나 수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야 할 것이다. 특수은행은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저신용 기업과 시중은행에서 거절한 기업에까지 자금을 확대 공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 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함으로써 국가 실물경 제가 회복되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경쟁력 부족 등 의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하는 일부 기업에까지 자금이 지원되 는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역기능도 수반하였다. 결국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정부정책 이행 이후의 3년간의 은행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은행은 경제위 기시에 보다 더 적합한 신용평가기법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계형 금융 등을 통해 파악한 거래기업의 비재무적 특성을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시중은행은 금융위기시 중소기업과의 상생의 길, 즉 이른 바 '비올 때 우산을 빼앗지 않는 중소기업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시 시중은행의 경기변동성에 순응하는 대출행태는 일시적으로는 해당은행의 경영성과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줄 수 있으나, 고객기반 약화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특수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지원을 거부한 기업들을 흡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을 키우게 되고 결국 대출지원이 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어 이는 국가경제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수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 행 또한 해당은행의 기존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 하여 은행의 공공성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의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소재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 경제위기시에는 시중은행의 자금공급 공백을 메움으로써 지방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 금융위기시 지방은행은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도내부 경영성과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해당은행의 성장기반을 확충해 놓는 긍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금융위기시 중소기업대출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소재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출의 경기변동성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에 정부정책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이 해당은행의 중장기적인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새롭게 실증분석하였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또한 갖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연구설계에 있어서 분석대상 기간 이전부터 은행별로 존재하던 경영성과의 차이에 대한 통제가 다소 부족하였다. 물론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은행의 재무적 특성과 거시경제변수를 통제하였으나, 정부정책이행이 미친 고유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DID(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를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순히 특정 정책의 시행여부에 따른 처리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효과 차이 분석이 아니라 국내은행 18개 전체를 대상으로 정부정책을 이행한 수준에 따라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DID Method를 통해 분석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내은행 전체 그리고 은행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과 은행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미친 영향은 도출하였으나, 개별은행별로는 살펴보지 못하였다. 즉, 개별은행별로 분석했을 때에 드러날 수 있는특징이 묻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과 건전성 저하가 불가피하게 뒤따라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별은행에 따라서는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중소기업대출 전체 순증액 18조 6,868억원의 83.3%에 해당하는 15조 5,643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총자산 규모에 있어 2008년말 5위에서 2009년말 4위로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도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해 뒤쳐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정부정책 이행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개별은 행에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표 5-1] 주요은행의 최근 3년간 경영성과 평균 비교

(단위: 조원, %)

구 분	총자산		총자산 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		대손충당금 적립률		고정이하 여신비율	
	금액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국 민	287	1	0.49	3	7.00	3	176.90	3	1.48	4
우 리	270	2	0.43	4	5.91	5	147.47	1	2.10	5
신 한	250	3	0.67	1	8.29	2	185.32	5	1.11	1
기 업	224	4	0.56	2	8.75	1	177.23	4	1.42	3
하 나	177	5	0.42	5	6.58	4	159.22	2	1.20	2
평 균	237	_	0.52	-	7.31	_	169.23	_	1.46	_

주) 최근 3년 : 2011~2013년

끝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시 계량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고 당시의 상황에 근거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자료수집의 한계에서 비롯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보고 및 공시되 는 기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원인분석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자료를 확 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기 당시 은행별로 신용등급별 중소 기업대출 취급금액과 대출금리 등의 세부정보를 확보 가능했더라면 좀 더 세밀한 원인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 어진다면, 다음 경제위기시에 정부 정책입안자 및 은행에 보다 많은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강종구·정형권(2006),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효과 분석』, 서울 : 한 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워
- 권혁대·이은서(2013), "은행의 대손충당금 결정요인", 재무와회계정보저 널. 제13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2012),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 서울: 글로벌금융위기극복백서편찬위원회
- 기업은행(2011), 서울: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IBK의 대응』
- 박정수·서정호·박보경(2013), 「은행의 대출확대가 은행수익성과 위험 성에 미치는 영향 : Bankscope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 서정호(2012), 『은행의 대출확대전략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서지용(2010), "중소기업대출행태의 변화가 은행의 미래성과와 중소기업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 손상호(2013), 『한국 정책금융의 평가와 분석 및 미래비전』, 서울 : 한 국금융연구원
- 신용상(2006), 『경기변동과 중소기업 자금조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금융연구원
- 윤석헌·박래수(2009),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은행의 조달과 대출의 경기 순응성", 한국경제의 분석, 제15권 제3호
- 이기영(201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 이종욱(2010), 『경기변동성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개선과제』, 서울 : 한국금융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2010), 「금융위기 하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과 경영성 과와의 상관관계」
- 조영삼(2008),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 : 산

#### 업연구원

- 한국은행(2011), 『한국의 금융제도』, 서울: 한국은행
- 홍순영·이종욱(2010),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 효과 분석』. 서울: 중소기업연구워
- 이재화·곽병진·박광우·박래수(2009), "겸업화와 은행의 경영성과": 66개 상업은행자료를 이용한 실증연구, 증권학회지, 제38권 제1호
- 박철민(2011), "은행의 생산성 및 경영성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산업경 제연구, 제24권 제2호
- Foos, Daniel, Lars Norden and Martin Weber(2010), "Loan Growth and Riskiness of Banks",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34*
- Clair, R.(1992), "Loan Growth and Loan Quality: Some Preliminary Evidence from Texas Banks", *Economic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Third Quarter
- Sinkey, J. and Greenawalt, M.(1991), "Loan-loss Experience and Ris k-taking Behavior at Large Commercial Bank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 **Abstract**

Analysis about the effects of Governmen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support policy on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Hwang, Chi-Yeol

Department of Public Enterprise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ment executed loan expansion polic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through the banks in order to provide the funds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were suffering from liquidity crisis 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But, the execution level of loan expansion policy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as different by each bank and especially big difference was identified by bank type because loan expansion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uld cause negative effects on the bank soundness and profitability in the situation tha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redit risk was increasing at that time.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the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execution effects of Government'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expansion policy 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targeting 18 domestic banks and also identified the differential influences according to bank type and execution level.

For this, this study defined individual banks loan increase rat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2009~2010) as the execution level of Government policies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after the financial crisis(2011~2013). Regarding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index, return on total assets and return stockholders' equity were analyzed for profitability index, allowance for bad debts ratio and NPL ratio were analyzed for soundness index and total asset growth ratio was analyzed for growth index.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expans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as identified to bring negative effects on the bank's profitability and soundness, and relatively weak positive effects on the growth. Second,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y was identified to bring differential effects on the bank type and the biggest negative effects on special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conducted the Government policy most actively. Third, when classifying the execution levels of Government policy according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increase rates, there was almost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se groups.

This study results show that the bank's loan type adapting the business cycle is more desirable in the aspects of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Accordingly, it could be predicted when the economic crisis lik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ill occur again in the future, market failure will follow that the bank will reduce financial support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and consequently, series of repeated phenomena could be predicted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expansion policy focusing on special bank.

But,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the institutional strategy and financial system that the market could voluntarily provide the fund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even at economic crisis because fund investment is required for Government's artificial financial support policy and side effects like inefficiency and external effects could occur. Additionally, banks should develop various financing techniques to actively support the loan at economic crisis in order that the bank could escape from the loan behaviors which adapts repeated business cycle at every economic crisis but coexists with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play a social role as a financial institution.

Finally, this study has the biggest meaning to analyze the effects of bank'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loan expansion to execute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policy at economic crisis, not the bank's internal strategy,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levant bank. But, there was slightly insufficient control in this study about management performance difference factors which have existed in the banks before the execution of Government policy a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dditionally, due to the limitation of data collection, this study has some partial limitations like not to conduct the cause analysis based on the measurement about study results, but if additional follow-up studies to correct this limitation c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o suggest more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 policy makers and banks at the next financial crisis.

keywords: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inancial support policy, bank's management performance, financial crisis, loan expansion

Student Number : 2014-23665